

# 대학평의원회회의록

1. 회의일시 및 장소 : 2021년 10월 7일(목), 오후 4시 / 대회의실(9동 2층)

2. 소집통보 : 2021년 9월 29일(수)

3. 의원 참석 현황 : 의원정수 11명중 10명 참석

(참석자 : 현종구, 장관순, 이창훈, 김경한, 박노승, 염왕열, 서여정(代 : 김가빈), 최재청, 최태영, 김천구 등 10명)

(불참자 : 홍다혜 1명)

## 4. 회의안건

- 1) 2021학년도 제5차 학칙 개정(안) 심의
- 2) 2022학년도 교육과정편성 지침(안) 자문
- 3) 2021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자문
- 4) 여자기숙사(호연숙) 증축공사 변경계획(안) 자문

## 5. 회의내용

[간 사] 지난 번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후 의장님의 회의 개최선언을 통해 회의를 개시하겠다고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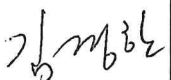
[의 장]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2021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금일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2021학년도 제5차 학칙 개정(안) 심의, 2022학년도 교육과정편성 지침(안) 자문, 2021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자문, 여자기숙사(호연숙) 증축공사 변경계획(안) 자문이라고 말하고 각 안건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주무부서에 요청하다.

[교무팀장] 2021학년도 제5차 학칙 개정(안)에 인턴십 운영에 따른 학점인정은 고등교육법 제39조가 아닌 제23조로 근거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학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 2021학년도 제5차 학칙 개정(안) >

학칙 제37조(학점인정)	
현행	개정(안)
① - ④ 생략	① - ④ 좌동
⑤ 인턴십운영에 따른 이수교과목과 학점인정은 고등교육법 제39조(교과목의 수의 인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⑤ 인턴십운영에 따라 학점인정이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인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⑥ - ⑨ 좌동

부 칙	
현행	개정(안)
<신 설>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 장 현종구		평의원 이창훈		평의원 김경한	
------------	---	------------	--	------------	---

[의 장] 주무부서의 설명이 끝난 뒤 각 평의원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평의원 최재청] 문구를 보면 필요한 경우에 학점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수하는 학점 제시와 학점인정을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학점을 인정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말한다.

[교무팀장] 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박노승] 문구에 법률을 제시하면 그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또 다시 학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법률의 문구와 학칙의 문구를 정리하여 명문으로 제시함이 어떠한지 의견을 개진하다.

[교무팀장] 좋은 의견으로 검토 후 가능하다면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다.

[의 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학칙 개정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해 줄 것을 말한다.

[교무팀장] 최재청 평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고 증빙서류가 적합한 경우 학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말하고 법률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좀 더 살펴본 후 반영할 내용이라고 답변하다.

[의 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강행규정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학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각 평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구하다.

[각 평의원] 각 평의원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 장] 상정된 안건의 문구 중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 한다"로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다고 말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주무부서에 요청하다.

[교무팀장] 두 번째 안건인 2022학년도 교육과정편성 지침(안)에 대해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학년제별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을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대내외적 각종 대학평가에 대비하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과정편성 지침(안)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고 전공교육과정편성 지침과 교양교육과정편성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 2022학년도 교육과정편성 지침(안) >

##### □ 학년제별 졸업 최소 이수 학점 조정(안)

학과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교양	필수	4	3	(1 ↓)	4	3	(1 ↓)	4	3	(1 ↓)
	선택	6	6	-	12	10	(2 ↓)	21	22	(1 ↑)
	소계	10	9	(1 ↓)	16	13	(3 ↓)	25	25	-
전공	소계	61	58	(3 ↓)	93	90	(3 ↓)	108	102	(6 ↓)
공통선택		5	5	-	5	5	-	-	-	-
졸업 최소 이수 학점		76	72	(4 ↓)	114	108	(6 ↓)	133	127	(6 ↓)

의 장 현종구		평의원 이창훈		평의원 김경한	
------------	---	------------	--	------------	---

## □ 주요내용

- 교양필수 교과목 통합(사회봉사1(1학점), 사회봉사2(1학점) → 사회봉사(1학점))에 따라 교양필수 학점은 사회봉사(1학점) 및 HIT 인성(2학점) 등 총 3학점으로 구성
- 4년제 간호학과외의 경우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 대비 교양선택 이수학점 기준(25학점 이상 이수)을 적용함
- 기초과학 영역 폐지(관련 교과목은 전공교과목으로 개설) 및 학과 지정 공통교양 개설 금지
- 학과별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을 초과한 교과목 개설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와 협의 후 진행
  - 대외적 교육과정 평가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학과로 부득이한 경우
  - 교직과정 운영 학과(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 기타 부득이하게 졸업 최소 이수 학점과 총개설학점을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이 어려운 학과(증빙자료 제출 필요)
- 창업 관련 교과목 및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학과별 필수 개설
- 대학 기준 실습교과목의 시수 비율 50% 이상 편성
- 교과목 명칭 통일 → 이론과 실습이 혼합된 교과목 : 000학및실습 / 이론교과목 : 000학, 000개론 등 / 실습교과목 : 000실습

[의 장] 주무부서의 설명이 끝난 뒤 각 평의원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부의장]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각종 평가에 대비하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과정편성 지침(안)을 작성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인지 묻고, 어떤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는지 여부와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이 하향 조정되면 학년제가 낮거나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교과목이 법률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와 국가면허시험을 보는 학과의 경우 자칫 졸업 최소 이수 학점보다 더 많은 교과목을 개설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가 개설에 대해 어떻게 할 예정인지 묻다.

[교무팀장]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아무래도 현재 우리대학의 재정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다고 답변하고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내용 중 단계적 졸업 최소 이수 학점 조정에 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고 학과별 특성이 있어 평가 또는 국가면허시험, 자격증 시험 등 부득이한 경우 교무처와 협의하여 증빙서류를 갖추다면 교무위원회 심의를 얻어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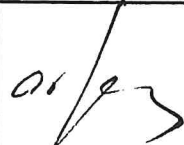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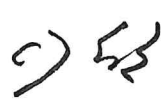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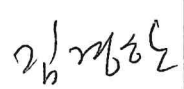
[의 장] 주무부서는 평의원들이 드리는 자문을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하다.

[교무팀장]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박노승] 부의장님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교무팀장] 알겠다고 답변하고 교무처의 입장에서 교육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항상 그 사이의 접점을 찾고 반영하느라 고민이 많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장관순] 많은 교수님들께서 공감하시고 있고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을 하향 조정하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겠지만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을 모두 포괄하는 공통선택의 경우 학생들이 대부분 교양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기 때문에 전공 교과목 이수 부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학생들이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

의 장 현종구		평의원 이창훈		평의원 김경한	
------------	---	------------	--	------------	---



한지 묻고 기초과학영역의 폐지로 전공교과목이 6학점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것 같다고 말하며, 어떻게 보면 전공학점이 공통선택까지 11학점이 감소하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고려하지만 학점도 보완하는 방안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이것이 결코 적은 학점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학과의 의견수렴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이 대학의 행정이기에 향후에는 이 점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말한다.

[의 장] 공통선택 5학점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묻다.

[교무팀장] 교무처에서도 금번 교육과정편성 시 삭제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학생들의 졸업에 있어 전공교과목을 하나라고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졸업이 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영역을 조금이나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학과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양교과목을 선택하여 전공교과목의 이수에 대한 걱정을 하하는데 5학점이 그렇게 많은 학점은 아니고 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어 전공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학생을 위해 좀 더 나은 제도일 것 같다고 말한다.

[평의원 장관순] 교무처의 입장도 맞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는 교양교과목을 선택하여 졸업을 못하는 학생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 줄 것을 말한다.

[교무팀장] 알겠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최재청] 전공이건 교양이건 각 학과마다 졸업 최소 이수 학점만큼 개설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교무팀장] 공통선택 5학점만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하고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공 최소 이수 학점을 하향 조정하면 되는데 이는 학과에서 더욱 어려워하실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다.

[의 장] 더 이상 자문할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후 주무부서는 지금까지 나온 평의원님들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다.

[교무팀장] 내용을 종합하여 보고 드린 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다.

[의 장]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자문은 여기서 마친다고 하고 세 번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기획팀장] 세 번째 안건인 2021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입은 등록금 수입의 감소와 교직원 인건비 보전과 생활관 증축사업을 위한 적립금 인출이 주된 내용으로 1차 추경 예산 대비 2,582,176천원 증가한 66,724,83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교직원 인건비 보전 금액 지급과 생활관 증축을 위한 건설가계정 비용 증대 및 기계기구 매입비 증대로 1차 추경예산 대비 2,582,176천원 증가한 66,724,837천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말하며 설명을 마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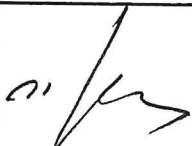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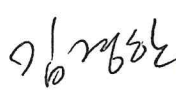
[의 장] 세입의 경우 크게 보면 수업료가 4억 7천만원정도 감액되었고 생활관수입이 한 3천만원정도 증대되고 HRD사업단과 사이버평생교육원 교육수입이 한 2억원 정도 증대되는 것이 주된 내용인지 묻다.

[기획팀장] 그렇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최재청] 우리대학의 본예산 편성시기가 언제인지 묻다.

[기획팀장] 매년 1월말쯤 편성이 완료된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최재청] 본예산 편성에는 예상등록금이 반영되는데 어렵겠지만 학생 수에 따른 수입과

의 장 현종구		평의원 이창훈		평의원 김경한	
------------	---	------------	--	------------	---

비용을 면밀히 예측하여 어느 정도는 정확한 예산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한 다면 추경예산을 좀 더 용이하게 편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최근 몇 년간 교육분야는 격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입이 줄어들면 비용도 같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지출구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기획팀장]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최재청]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 중 고정자산매각수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다.

[기획팀장] 불용품 처리에 따른 금액이 반영된 것이라고 답변하다.

[평의원 최재청] 여자기숙사 건립에 있어 입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규모가 500명이 넘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은 아닌지 묻다.

[기획팀장] 여자기숙사에 대한 문제는 다음 안건에 준비되어 있어 함께 답변하겠다고 말한다.

[평의원 장관순] 추경예산의 편성 이유가 교직원 인건비 지급, 산학협력단 지출을 위한 교비 비용 마련, 기숙사 건립 변경계획 등 총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등록금수입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수입으로 충당을 하는지 묻다.

[기획팀장] 적립금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장관순]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다.

[기획팀장] 약 76억 정도 된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박노승] 세입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적립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주무부서에서는 세입을 좀 더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말한다.

[평의원 최태영] 추경 내용 중 산학협력단 혁신지원사업비로 11억원정도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법인으로 독립적인 회계를 가지고 있어 교비회계에서 전출은 금지되어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내용에 대해 묻다.

[기획팀장] 우리대학의 종합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내용으로 혁신지원사업비 중 일부 반환금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재정지원사업비가 감소하더라도 정해진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말하였고 이를 위해 교비로 집행하는 것을 계획한 것이고 회계적인 전출은 발생하지 않아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문해 주신 내용 고려하여 원칙을 벗어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최재청] 비등록금회계 중 고정자산배입비 30억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묻다.

[기획팀장] 토지매입비라고 말하고 세종시 캠퍼스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토지매입비용이라고 답변하다.

[평의원 최재청] 과거 지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책담당자의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말하고 이러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 내실 있는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판단된다고 말한다.

의 장 현종구		평의원 이창훈		평의원 김경한	
------------	---	------------	--	------------	---



[평의원 장관순] 최재청 평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다.

[의 장] 더 이상 자문할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후 주무부서에서는 자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입안과 실행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마지막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팀장] 여자기숙사(호연숙) 증축공사 변경계획(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 여자기숙사(호연숙) 증축공사 변경계획(안) >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구 분	추진방식	총 사업비	교비부담	구 분	추진방식	총 사업비
행복기숙사(2차)	사학진흥재단 BTO방식	약 392억	약 145억	여자기숙사 주차장	교비추진	약 300억
체육관&주차장	교비추진					
합 계		약 392억		합계		약 300억

####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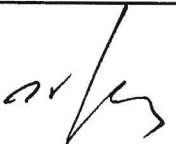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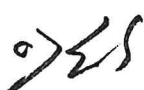

사 업	• 대전보건대학교 여자기숙사(호연숙) 증축 사업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충청로 21 (現)호연숙		
면 적	• 연면적 : 14,047㎡(4,249평)		
규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li> <li>- 지하 1층</li> <li>- 54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숙사</li> <li>- 지하 2층~지상 8층</li> <li>- 522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게스트하우스</li> <li>- 지상 9층</li> <li>- 4~6명</li> </ul>
추진방식	• 교비추진(임의건축기금 재원)		

#### □ 예상 추진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조성계획변경 및 설계용역	→													
시공 및 감리업체 선정				→										
공사시행 및 준공							→							

#### □ 예상 사업비

구분	예상 사업비	2021	2022	2023	2024	비고
여자기숙사 (호연숙)	약 300억	약 4.5억	약 98.5억	약 98.5억	약 98.5억	건축기금 재원

의 장 현종구		평의원 이창훈		평의원 김경한	
------------	---	------------	--	------------	---

[의 장] 주무부서의 설명이 끝난 뒤 자문해 줄 것을 각 평의원에게 요청하다.

[평의원 최재청] 지하는 방이 없어 지상 1층부터 8층까지 522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대학의 기숙사 상황이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학년에는 많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원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522명이 모두 등록할 것으로 분석하여 방안을 수립한 것인지 묻다.

[기획팀장] 생활관과 협의하여 예측한 후 수립한 방안이라고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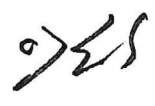

[평의원 최재청] 그렇다면 공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인지 묻다.

[기획팀장] 코로나 상황으로 공실이 있긴 하지만 새로 건립한 남자기숙사의 경우 공실이 거의 없고 여자기숙사의 경우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입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게 건립하여 확대하는 것은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안을 계획하였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최재청] 공실이 생길수록 비용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입안담당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내실 있는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말하고 또한 임의건축기금을 사용하여 건축하는 것인데 이제는 기금을 적립할 여력도 없는데 약 376억원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을 강조하다.

[평의원 장관순] 많은 대학에서 학생 복지 등을 위해 기숙사 건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건축방식이 교비추진으로 변경되는데 다른 대학들도 이러한 것을 교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와 이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구성원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 없이 정책입안자 등 몇 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며 향후 진행에서는 외부 전문가 집단과 내부 구성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자문단을 만들어 심도 있는 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고 기숙사 증축공사에 있어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말한다고 하고 첫째는 신입생이 줄어드는데 기숙사가 이만큼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 두 번째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 유발 문제, 마지막으로 대학과 학생 · 교수협의체와 내부전문가 및 정부 당국자 등 관련 있는 단체 또는 구성원과 함께 연계하여 대학기숙사 건립을 위한 협의체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어려운 현재 시점에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기숙사 증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좀 더 탄력을 받고 명분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거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몇 사람이 정책을 만들고 건립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것을 검토하여 어떤 부분들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현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협의와 결과의 도출이 상당히 중요하며 좀 더 추이를 살펴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현재는 약 300억원의 비용이지만 설계변경 비용이라든지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은 농후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면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하다.

[의 장] 주무부서에 평의원들이 개진한 의견을 심도 있게 고려해 줄 것을 말하며 기숙사 증축 공사는 건립방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아마도 평의원님들이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현재 대학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걱정이 앞서는 마음과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마지막 안건에 대해 주무부서에서는 금일 자문된 내용에

의 장 현종구		평의원 이창훈		평의원 김경한	
------------	---	------------	--	------------	---

대한 추적 ·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학칙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의 ·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언급된 대로 자문하는 것으로 하여 회의를 마치고자 한다고 하며 각 평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구하다.

**[각 평의원]** 각 평의원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 장]**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마친다고 말하고 간서명은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김경한 평의원이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치다.(산회 : 17시 37분)

2021년 10월 7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의 장 : 현 종 구

부의장 : 이 창 훈

평의원 : 박 노 승

평의원 : 염 왕 열

평의원 : 최 태 영

평의원 : 최 재 청

평의원 : 장 관 순

평의원 : 김 천 구

평의원 : 김 경 한

평의원 : 홍 다 혜

평의원 : 서 여 정

(代) 김가빈